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201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주 영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김 정 규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이 주 영

인 준 서

이주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중독자와 일반 음주자의 성격 특성을 비교해봄으로써, 알코올 중독에 대한 성격적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 알코올 중독집단 내의 남녀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가장 잘 구분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알코올관련 장애의 적절한 조치와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알코올 중독집단과 대조집단인 일반 음주집단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알코올 중독집단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로 114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가 68명, 여자가 46명이었다. 일반 음주집단은 병원이나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치료 경험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가 99명, 여자가 102명이었다.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으로 나누어서 다요인 인성검사(16PF)와 아이젠크 성격검사(EPQ)의 두 가지 성격검사를 실시하였고, 문제대처방식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15.0을 이용하여 t-검증과 공분산 분석,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학력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 간에 교정된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16PF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격하위요인은 자아강도, 정열성, 실리성, 자책성, 불안성이었으며, 성격차원검사(EPQ)의 하위성격요인은 신경증적 경향성 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대처방식에서는 정서 중심적 대처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을 비교하였을 때, 성격특성에서 온정성과 자아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처방식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잘 구분해주는 변인은 자아강도, 신경 증적 경향성, 진보성 요인이었다. 이 변인들은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성별로 나누어 각 집단을 잘 구분해주는 변인을 확인하였다. 이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함에 있어서 임상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어: 알코올 중독, 성격특성, 대처방식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II. 이론적 배경	5
1. 알코올중독	5
2. 알코올중독과 성격특성	11
3. 알코올중독과 문제 대처방식	16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9
1. 연구대상	19
2. 연구도구	19
1) 알코올선별검사	19
2) 16PF 다요인 인성검사	20
3) 아이젠크 성격차원검사	23
4) 대처방식척도	24
3. 자료분석	26
IV. 연구 결과	28
1.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의 성격특성과 대처방식 비교	28
2.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성격특성과 대처방식 비교	31
3.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의 관별변인	34
V. 논의	37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부 록

표 목 차

표 1. 다차원성격검사도구의 하위척도 및 척도 구성요인과 채점 기준 ...	23
표 2. 대처방식검사도구의 하위척도 및 척도 구성요인과 채점 기준	26
표 3. 연구대상 집단의 알코올 선별검사점수 분석 결과	28
표 4.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의 동질성 검증	28
표 5. 두 집단에 따른 교정된 성격특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29
표 6. 두 집단에 따른 교정된 대처방식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31
표 7.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동질성 검증 결과	31
표 8.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성격특성 분석 결과	32
표 9.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대처방식 분석 결과	34
표 10. 성격특성이 집단 특성을 구별하는 기능에 대한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	35
표 11. 판별분석의 분류 결과	3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예로부터 술을 다양하게 사용하여왔다. 축제나 관혼상제 및 종교 의식에서 술을 사용하고, 월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는 현실속의 힘들거나 슬픈 일을 잊기 위해서 술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되어왔다. 술은 인간의 기본 정서인 희노애락과 함께하며 삶을 정화시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평가되었다. 그러나 1800년대 이후 산업화로 인해 술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음주량의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이에 따라 점차 술과 관련된 신체와 정신적인 질환과 사고가 늘었다. 이와 같이 술은 인간의 정서생활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나, 술로 인한 폭력행위, 교통사고 등의 범죄행위, 가족이나 친구와의 불화나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발생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기능이 문제가 되어오고 있다.

1960년대 말 알코올중독(alcoholism)을 성격장애와는 별개의 장애로 보기 시작한 이래, 1970년 대 중반 알코올중독을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과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통제의 손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알코올에 대한 내성의 증가, 반복된 금단 증상, 음주에 대한 충동 등을 보이는 경우를 '알코올 의존 증후군(alcohol dependence syndrome)'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음주로 인해 문제들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알코올 관련 장애인(alcohol-related disabilities)'이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제4판(DSM-IV, APA, 1994)에서는 내성,

금단, 사회적·직업적 기능의 손상, 음주에 대한 통제력의 손상 등 일곱 가지의 진단 항목 중 지난 일 년 동안 세 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알코올 의존(Alcohol Dependence)'으로 진단내리고, 또 '알코올 남용(Alcohol Abuse)'은 음주로 인한 학업이나 직무 수행의 장애, 신체적으로 유해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음주하는 것, 음주로 인한 사회적 혹은 대인관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것 등 네 가지 진단 항목 중 지난 일 년 사이에 한 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진단 내린다.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는 용어는 '알코올 의존' 또는 '중독성 음주(Addicted Drinking)'를 지칭할 때 사용하며, '문제성 음주(Problem Drinking)'란 세계보건기구 분류의 '알코올 관련 장애'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서의 '알코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2008)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음주경험자는 73.2%이며, 월 2~3회 음주자 비율은 31%, 주 1~2회 음주자 비율은 24.4%, 주 3~4회인 경우 9.6%,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음주자 비율이 5.3%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의 알코올장애확인검사(AUDIT)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32.2%가 알코올 중독 가능성이 있는 문제성 음주자로 분류되고, 국립서울정신병원이 개발한 알코올 중독 선별검사에서는 응답자의 4.2%가 알코올중독자로 분류되었다.

알코올 중독의 가계력, 성격특성, 알코올효과에 대한 기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부모의 음주에 대한 태도, 친구 및 동료의 영향, 사회적 배경 등 유전적, 환경적 및 문화적 영향력의 범주에 해당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이들 중 성격 요인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성격이 음주 행동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인간 행동의 개인차를 설명해줄 수 있는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인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의 단일한 성격을 규명해내려는 시도들은 아직 그 결과가 확정적이지 못하다(Nathan,

1988). 이런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알코올중독과 성격 변인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알코올 중독에 대한 민감하고 특정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단일한 성격 특성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여전히 성격은 알코올 중독의 원인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에 있어 성격 요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지금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신행우, 1998)

많은 연구에서 여러 가지 성격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 특성 및 성격특성과 예후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격검사도구로 다면적 인성 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를 이용한 연구들이 많으며, 이는 임상병리 환자들의 정신병리를 진단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여 왔다. 이외에도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EPQ),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TPQ), Personality Research Form(PRF)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의 성격에 대해 전체적이고 역동적인 특징들을 묘사하는데 유용한 염태호, 김정규(1990)의 '다요인 인성검사(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 16PF)'를 실시하였고, 성격에 차원으로 접근하는 아이젠크의 '성격차원검사(Eysenk Personality Questionnaire : EPQ)'를 사용하였다. 알코올 중독자와 일반 음주자의 성격 특성을 비교해봄으로써, 알코올 중독에 대한 성격적 위험 요인을 규명하고, 여러 성격 유형들 중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성격 유형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격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함으로써, 성격 유형에 따른 대처방식을 통해 알코올관련 장애의 예방과 치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특성과 문제 대처방식을 살펴보고, 대조집단인 일반 음주자와 비교하여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이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가설 1. 성격특성에서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대처방식에서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에서 남녀의 차이가 있는가?

가설 1.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격특성에서 남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을 것이다.

가설 2. 알코올 중독집단의 대처방식에서 남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을 것이다.

3)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알코올 중독

1) 알코올 중독의 정의

알코올 중독이 단일한 질환이 아니라 복합적인 행동장애로 간주되고 그 사회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진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그 정의를 기준하기는 매우 어렵다. 최근에 밝혀진 정의들을 살펴보면, 중독(addiction)이란 물질이나 습관적 행동이 해로운 결과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절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중독의 유형에는 알코올, 니코틴, 도박, 마약, 인터넷, 음식, 운동, 성 중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세계 보건 기구(WHO)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란 "전통적 음주습관의 영역을 넘거나 혹은 지역 사회 전체의 사회적 음주 습관의 범위를 넘어 음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에 부수된 병적 인자나 그 병적 인자가 얼마만큼 유전, 체질, 또는 신체 병리적, 대사적 질환을 받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것을 알코올 중독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Cooper(1992)등에 의하면 음주자들은 알코올이 긴장이나 불안 또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이완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알코올 의존 환자의 일부는 우울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투약으로써 알코올을 마시게 된다고 하였다. 알코올 의존 환자는 비의존 음주자에 비해서 불안이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상태가 알코올의 과다사용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윤영주, 노승호, 2003)

알코올 중독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음주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며,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전반적인 기능 장

애를 초래함으로써 한 개인의 건강은 물론 그 개인을 둘러싼 가정과 사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알코올 중독자 자신과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알코올 중독의 원인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는, 알코올 중독이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룩된 것으로 학자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크게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은 1950년을 전후해서 Williams 등에 의해서 선천성 영양장애설이 제기되었다. 그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의 신체에는 유전적으로 대사장애의 패턴이 있어서 결함을 보충하려는 본능적 요구가 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이정균(1987)은 신진대사에 결함이 있다고 하였는데,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의 체내에는 비정상 효소에 의한 신진대사의 결함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결함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알코올이기 때문에 소질적으로 알코올을 체내에 받아들인다는 주장이다. Merikangas(1985)는 직계 가족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경우 알코올 중독이 발병할 위험성이 7배가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여성 알코올 중독자의 가계를 연구한 결과 남성과 여성 친지들 중 알코올 중독이 유사하게 많았다(Cloninger, 1983). 카이즈(Kaij, 1960)는 알코올 중독에 관한 쌍생아 연구에서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란성 쌍

생아에서 54%, 이란성 쌍생아에서 28%로 양자의 비교에서 유의한 차를 인정하고 유전 소질의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유전성이 알코올 중독 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유전적-환경 상호작용설(Gene-Environmental Interaction)'이 가장 유력하다. 이 모형을 검증한 Cadoret 등(1995)은 유전이 알코올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첫째는 부모의 양쪽 또는 한쪽이 알코올 중독자여서 자녀 중에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유전적 요인의 직접 효과이며, 둘째는 알코올 중독을 보이는 양부모의 알코올 문제가 양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의 직접 효과이다. 셋째는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반사회성 같은 성격 특성이 양자로 간 아이의 공격성을 증가시켜 알코올 중독이 위험성을 매개한다는 간접적 효과를 검증하였다(Cadoret, Yates, Troughton, Woodworth & Stewart, 1995).

기질적 요인으로 가족력이 있는 사회적 음주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김성재, 1996). 알코올의 산화요소인 Aldehyde Dehydrogenase 1이 선천적으로 결핍된 사람은 음주 후의 신체적 불쾌반응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만, 일단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경우에는 신체적 의존과 금단 증상이 다른 환자들보다 쉽게 생겨 급격한 악화경로를 밟는다(이택중 외, 1991).

최근 알코올 중독에 대한 연구방향은 알코올 중독이 유전적 경향이 높은 질환이라는 인식 위에, 어떤 요인들이 유전적 소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려 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의 위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유전적 인자로는 알코올 대사 탈억제, 충동성 현상, 알코올에 대한 반응정도, 독립적인 정신질환 등이 있다(김종성, 박병강, 김갑중, 2001).

(2) 심리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은 대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음주를 한다. 특히 초자아가 강

해 자기징벌의 욕구가 있을 때 음주를 하게 된다. 성격적으로 그들은 부끄러움이 많고 외톨이이며, 불안정하고, 인내심이 적고, 예민하고, 성적으로 억제되어 있다. 알코올중독자에서 우울, 망상적 사고경향, 공격적 감정과 행위, 자존심, 책임감 및 자기 통제력의 저하를 보인다. 술은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에 성취감, 해방감, 전능감을 준다. 부모 특히, 어머니의 과잉보호가 아이의 구순적 욕구의 무의식적인 조장과 부친과의 갈등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신분석적 입장은 알코올 중독이 본능적 쾌락과 공격적 충동에 대한 무의식적 갈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퇴행적 행동화이거나, 의존 욕구와 분노 사이의 신경증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비적응적 방어기제를 사용한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때 알코올 중독의 중요한 역동적 원인은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와의 이별, 거부, 독립에 대한 강요, 과잉보호 등으로 생겨난 의존욕구와의 갈등으로 보았다. Blane(1968)은 알코올리즘의 중요한 역동적 요인이 의존욕구와의 갈등이며 이러한 갈등은 어린 시절 동안 경험한 부모의 거절, 과잉보호, 또는 독립에 대한 강요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최근의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알코올을 포함한 물질 남용과 의존을, 심리적 고통과 그에 대한 자기 조절력 결여에 대한 '적응적' 반응이라고 보고 있다 (Leeds & Morgerstern, 1995). 즉 내적 자기 조절력 결여에 대처하려는 자아가 부적절하고 미성숙한 자아방어기제를 동원하여 물질 사용장애를 유발한다는 관점이다. 특히 물질 남용자들은 지나치게 가혹한 초자아가 형성되어 있어 심각한 개인내적 갈등구조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강렬한 분노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Khantzian, Halliday & McAuliffe(1990)는 자기-결함(self-deficit)이론을 통해, 물질남용이라는 현상의 기정에는 자아의 부적절성(inadequacies)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약물을 선택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자아 결함에 대한 '자기-투여(self-medicating)'의 속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기-투여란 물질(술,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노와 두려움이

치치(treatment)되는 것을 말한다.

정신역동적 입장에서는 발달단계상 구강기에서의 고착을 알코올 중독의 촉발요인으로 보고 있다. 어머니에 의해 무시되는 것이 어린 남자아이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해 무의식적인 동성애 충동을 야기시키며 이런 억압된 충동으로 인해 술집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고 이를 통해 여성으로부터 받지 못한 정서적인 만족을 얻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과음은 정서적 갈등이나 죄의식을 제거하기 위해 채택되는 방어기제로 설명되기도 한다. 정식분석적인 입장에서부터 구강-의존적 성격개념이 도입되었는데,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머니에 의존적이고 권위인물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진다고 하였다.

학습모형이론은 술이 주는 갈등과 불안의 감소가 알코올중독의 원인이라 한다. 특히 첫 번 음주시의 흥분, 쾌감 및 불안감퇴가 이후 재강화의 근원이 되어 학습이 진행된다. 또는 장애가 진행되었을 때 금단증상이 나타내는 고통이 술을 끊게 하지 못한다.

사회학습이론에서 Bandura(1977)는 '알코올 중독자들은 여러 가지 강화와 모방의 경험을 통해 혐오자극에 대해 광범위하게 일반화된 대처방식으로 주로 알코올을 사용해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알코올 사용은 부적 강화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다. 즉 음주가 스트레스 경감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마시게 되며, 알코올 사용은 다른 기타 혐오상황까지 일반화되고 긴장을 감소시킨다는 인식에 의해 강화된다(Cappell & Greeley, 1987).

학습모형에서는 초기의 과도한 물질 사용은 몇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라고 보았다. 초기에는 그 개인의 생리적 구성(유전적 위험인자, 기질)에 의해 물질사용이 강화가 되느냐 처벌이 되느냐 여부가 결정되고, 사회적 환경이 물질사용을 촉진시키거나 묵인하게 해주며, 조작적 조건형성의 기본 원리가 작용하여 물질사용행동을 강화해주거나 유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

개인이 물질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다른 대처행동들을 덜 사용하게 되고, 물질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더 증가되어, 결국 물질사용이 증가한다. 또한 후기 단계로 가면, 이제는 중독자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자동적 처리 과정에 의해 조건화된 충동, 내성, 금단 등 고전적 조건화로 강화된 습관들이 술을 심각한 문제로 진행시키고 지속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족 요인, 동료의 영향, 물질 사용을 지지하는 사회적 환경, 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역기능적인 가족 내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과 음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가족 내 사회화과정이 알코올 남용에 기여하게 된다. 동료 집단의 영향도 청소년 집단에서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사용을 촉구하는 위험인자임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Wills, 1995). 특히 가족 내 불화, 스트레스, 다른 정신과적 문제들, 낮은 자존감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일탈적 동료 집단의 개입이 커졌다.

Bales(1949)는 문화와 사회 조직이 알코올중독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세 가지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그 문화권 사람들이 내적 긴장과 적응에의 요구를 나타내는 정도와 그 문화권에서의 음주에 대한 태도, 음주 이외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방법을 그 문화가 제시할 수 있는 능력들이라고 하였다(양정남, 1992 재인용).

가족적 요인은 가족관계에 있어서 성장 과정 중에 있었던 가정 붕괴, 친부모 상실이나 가족구조상의 결함, 비행성 부친 또는 과보호적인 모친, 건전한 사회적 성적 동 일시의 결여가 알코올중독의 발병에 크게 기여한다고 한다(이길홍, 1973).

(4) 생리학적 요인

알코올이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주어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내성 및 의존에 대한 설명을 주로 신경전달물질과 관련 있다고 설명한다. 알코올과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물질은 GABA, Serotonin, Dopamin, Glutamate, Endogenous Opioid 등이 있다. 알코올이 해부학적인 변화를 가져와 뇌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기도 하다.

2. 알코올 중독과 성격 특성

DSM-IV에서는 성격특성이란 광범위한 사회적, 개인적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해 지각하고 관계를 맺고 생각하는 지속적인(고정된)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APA, 1994).

알코올중독은 단일차원의 질병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다(김성재, 1995). 특히 심리적 차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변화가 가능한 심리 치료적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 보인다. 알코올중독과 성격간의 복합성에 대해 연구한 Pattison(1984)은 알코올관련 장애를 스펙트럼상의 개념으로 보았다. Stacy 등(1991)은 성격이 직접적으로 또는 선행요인을 매개하거나 다른 인접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음주형태들과 독립적으로 부적 정서나 공격성과 같은 성격특성이 음주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가족병력이나 음주동기와 같은 요인이 그 영향을 조절하거나 매개한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자기 증오심 때문에 고집스런 자만심을 보이며 매우 방어적이고 민감해서 타인의 충고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심한 자기

연민에 빠지며 좌절을 견디지 못 하고 무엇이든 즉각적으로 만족되기만을 원하며 마음은 원함과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며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다고 한다(천주의 성 요한 알코올상담치료센터; 회복에 이르는 길, 1993, 정왕용 재인용, 1995).

성격적 위험 요인들 중 지금까지 가장 일관성 있게 나타난 특성은 부정적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과 행동통제의 부족(behavioral undercontrol)이며 이것은 알코올중독의 취약성 성격으로 나타나고 있다(Sher & Trull, 1994; Cox, 1987; Stacy 등, 1991). 부정적 정서성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경향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MMPI 상에서 반사회성 척도 점수의 상승과 더불어 우울척도와 강박증 척도에서 상승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또한, 행동통제 부족은 과잉활동성, 충동성, 공격성, 반사회성 및 감각추구성향과 같은 유사하게 보이는 성격특성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Sher 등, 1991), MMPI 상에서 반사회성 척도의 상승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Martin & Sher(1994)의 보고에서 알코올 의존자의 성격이 부적절 성격, 수동공격성, 강박적 성격, 우울증을 동반한 의존적 성격과 편집증적 성격, 일부는 정신병적 상태나 반사회성과 관련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김동인(2006)의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자의 성격과의 관련은 수동공격과 강박성이 많이 나타났다. 조성남 등(1984)은 알코올 의존의 성격적 혹은 심리적 특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반사회적, 충동적, 수동-공격적 및 편집증적 경향, 그리고 미숙하고 불안정한 정서 등을 더 많이 드러내며, 충동조절이 빈약하여 음주를 하게 되면 반사회적 행동을 야기하고, 자기 비판적이고 자기비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정왕용(1995)은 알코올 중독집단이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내향성 특성에서 사교적 음주 집단과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부정이고 알코올에 대한 이상한 집착과 자기 혐오를 느낀다. 대개

의 음주 습관자가 자기의 음주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은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더욱 강화된다고 하였다(Chafetz, 1973). 윤해주 등(2004)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서로 구분될 수 있는 독특한 성격적인 특성들과 정서적 성향이 존재하며, 이러한 특성들이 연령의 증가와 상관없이 비교적 영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치료적인 개입에 공격성, 충동성과 같은 성격적 특성과 우울과 같은 정서적인 차원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군과 비중독군 간의 성격 외 기질적 특성 연구가 시행되었는데, 기질적 측면에서의 위해 회피성(harm avoidance, HA)과 보상 의존성(reward dependence, RD)에서 유의한 차이점을 보였다.

중독자들의 성격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색다른 것을 추구하는 기질이 높은 사람은 충동적이고 흥분을 잘하며 무질서한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Pfohl 등, 1986 ; Svrakic 등, 1991) 위험 회피 척도가 높은 사람은 예기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수줍음 및 쉽게 피로해지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Cloninger, 1986). 또한 보상 의존성이 높은 사람은 감상적, 의존적이며 어떤 자극이 쾌락을 주거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자극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Pfohl 등, 1986 ; Svrakic 등, 1991).

Cloninger 등(1991)은 신경해부학적 신경생리학적인 개념을 토대로, 외부적 자극이나 신호에 따라 반응하는 행동 경향성 또는 양식에 따라 세 가지 차원으로 개인의 인격 특성을 설명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TPQ(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이다. 이 세 가지 차원은 혐오적 자극에 강렬하게 반응하여 행동을 억제하도록 학습하는 경향성인 ‘위해회피’(harm avoidance) 차원과, 새로운 자극이나 잠재적 보상에 대한 단서들에 반응하여 탐색적 활동을 유도하는 ‘새로운 경험의 추구’(novelty seeking) 차원과, 보상의 신호들에 강력하게 반응하여 보상과 연합된 행동을 유지하게 하려는 경향성과 관련된 ‘보상 의존성’(reward dependence) 차원이다. 이 연구에서

수동-의존적인 성격은 오랫동안 술을 끊을 수 있지만 일단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폭음을 중단할 수 없는 통제 상실이 주된 특징이었으며, 새로운 경험의 추구 성향이 높고 위해 회피성과 보상 의존성이 낮은 사람들은 술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고 자발적 알코올추구 행동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행동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축형 TPQ를 이용하여, 성격과 음주 동기가 음주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TPQ의 세 가지 차원 중에 '새로운 경험의 추구' 차원은 음주 정도와 음주 문제에 가장 강력한 예언 변인이라고 했고, '위해 회피'차원은 음주 정도와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음주 문제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예언 변인이라고 했다. 그리고 '보상 의존성' 차원은 음주 정도 및 문제와 관련된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었다. 신행우(1998)는 일반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성격특성과 음주문제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동-공격형 성격유형을 지닌 사람들 집단에게서 음주문제가 가장 심하며, 기분고양을 보이는 사람들 집단에게서 음주문제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고 하였다. 윤영주 등(2003)의 연구에서 25세 이후에 알코올 의존이 발병한 경우, 대인관계척도인 온정성(WRM)에서 정상 음주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김영환 등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에서 대립이나 충돌이 있을 경우 불편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새로운 경험의 추구(NS) 점수는 보다 기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알코올 의존에 걸릴 위험성을 높이는 소인(predisposing factor)으로 평가된다. NS는 Zuckerman(1983)이 제기한 감각적인 것의 추구(sensation seeking)와도 관련이 있다.

Irwin 등(1990)의 연구를 비롯하여, Peterson 등(1991)의 연구, 그리고 Zaninelli 등(1992)의 연구에서 25세 이전의 조기 발병군은 25세 이후의 지연 발병군에 비해 보다 많은 성격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윤영주, 노승호(2003)의 연구에서 Cloninger의 분류에 따른 유형에서 PAI를 사용하였으며, Type II는 Type I에 비해 약물 남용의 가능성이 높고 불안, 우울, 외상적 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며, 자살에 대한 생각이 많고 반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이 더 많으며, 공격성을 공격적 태도와 신체적 공격으로 나타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훈 등(2002)은 TCI 척도를 이용한 성격 및 기질 특성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 환자는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보다 충동적이고, 무절제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의 기질을 어렸을 때부터 지녔으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이 미숙하여 알코올 의존에 빠지기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경 등(1999)은 여성 알코올 의존자는 의존적, 수동공격적, 히스테리적 경향을 보였고, 남성 알코올 의존자는 의존적, 편집증적, 수동공격적, 반사회적 경향을 보여 남, 여 알코올 의존환자 모두 의존적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박종섭 등(2004)의 연구에서 알코올 의존환자군은 정상 대조군보다 '행동화', '전치', '투사', '해리', '신체화', '부정', '회피', '동일시'의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의존환자들이 감정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행동화라는 미성숙 방어기제에 익숙하고 이러한 정서적 문제가 알코올의존의 위험인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격특성, 정서상태, 신체상태, 재발행위 등으로 나타나며, 재발은 환경적 변수보다는 개인-특이적 변수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강현식(2005)의 연구에서 재발집단은 새로운 경험의 추구하고 위험 회피의 성격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성격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재음주로 인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장애를 더 심각하게 나타낸다고 한다. 그러므로 회피성, 의존성, 연극성, 경계성 반사회적, 수동공격적 성격특성이 많을수록 재음주로 인한 기능장애가 심하다. 개인의 신체상태가 재발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적 요

인으로 작용하는데 신체상태가 나쁘면 재음주로 인한 기능장애가 심각하며, 이는 객관적인 신체적 건강여부보다는 개인이 지각한 자신의 건강상태가 재음주로 인한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다(김성재, 1995). Brown(1995)은 의존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정서적, 물질적인 지지는 오히려 금주에의 결단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3. 대처방식

대처는 개인의 자원을 초과한다고 평가되는 외적, 혹은 내적 요구를 다루어 가는 과정으로 인지적, 행동적 노력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Lazarus & Launier(1978)는 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 대처 노력을 하여 사람과 환경 자체를 바꾸게 하거나("문제 중심적 대처"), 정서적 고통을 조정하여 사람과 환경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정서 중심적 대처")고 보았다.

대처를 여러 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하려는 여러 노력은 특정 행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유형을 나누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처를 스트레스를 다루어가려는 노력(Moos & Billings, 1982)으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도 대처하는 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문제 중심적 대처"와 이 노력이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 등 내부로 투여되는 "정서 중심적 대처"로 나누었다.

"문제 중심적 대처"는 고통을 야기시킨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을 다루며, "정서 중심적 대처"는 그 문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고자 하는 목적을 띄게 된다.

대처와 심리적 적응 / 부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Meneghan(1982)은 역할 영역에 따라 특정한 대처유

형이 더 효과적임을 밝혔는데, 이는 어떤 대처 전략이 다른 대처 전략보다 본래부터 더 좋거나 나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적응에는 다양한 대처 방식이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 Lazarus & Folkman(1984)와, 대처의 좋고 나쁨은 주어진 상황에서의 그 대처의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한 Parkes(1986)의 주장과 일치한다.

Billings & Moos(1981)의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는 심리적 안녕과 정서적 관계를 보이고, "정서 중심적 대처"는 과도하게 사용될 때 덜 적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Lazarus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변호사들의 경우에 정서 중심적 대처에 속하는 회피 대처(스트레스 상황을 부정, 축소, 회피하려는)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더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정희(1987)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소망적 사고를 많이 하고 정서 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연구마다 대처의 분류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문제 중심적 대처"가 "정서 중심적 대처"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김재현(1999)은 대처방식에서 알코올 문제가 심각한 집단이 덜 심각한 집단에 비하여 인지적 대처와 회피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성격이 사람의 적응을 손상시키거나 용이하도록 하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한다고 가정하는 연구자들은, 대처의 선행인자가 될 수 있는 성격특성에 특히 관심을 두었으며, Wheaton(1986)은 운명론(Fatalism), 강직성(Inflexibility)을, Kobasa(1979)는 내구성(hardness)을 대처의 선행인자가 된다고 보았다.

하나의 스트레스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일반적인 대처방식을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한 Billings & Moos(1984)는, 심리적 증상(우울)과 연관되는 대처방식이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중점을 두는 연구자

들은 그 상황이 부과하는 심리적 위협의 성질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

Pearlin & Schooler(1978)는 심리적 적응에 대해서 성격 특성과 대처반응의 상대적 기여도를 측정했을 때 숙달감(mastery), 자아존중감, 자기 모욕감(self-denigration)같은 성격특성들은 통제할 수 없는 생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대처 반응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통제가 가능한 영역에서 적응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Holahan & Moos(1987)는 스트레스 저항 자원들과 대처 방법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피 대처를 사용하기 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 유형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개인적 사회적 자원들은 스트레스를 다루는 대처 반응을 통해 직접, 간접으로 적응에 연관되어 있음을 개념화했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은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떤 능력과 개인적 자원을 가지고 반응, 대처하느냐가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과 대처 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 음주자와 비교하여 살펴보고, 또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특징을 이해하고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강조하는 개입과 중재를 통해서 심리적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서울,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알코올 병원 2곳과 알코올 상담센터 8곳을 이용하는 알코올중독자에게 총 180부를 배포하여 159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45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14부(남자 68명, 여자 46명)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대조 집단은 일반 음주자에게 총 270부를 배포하여 24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44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201부(남자 99명, 여자 102명)를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중독자 집단과 일반 음주자 집단을 구별하기 위해 AUDIT(알코올 선별검사)를 사용했다. 또한 두 집단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6PF(다요인 인성검사)와 아이젠크의 성격차원검사를 사용하였고, 문제 대처방식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알코올 사용장애 진단검사(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AUDIT)

1989년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개발한 알코올 문제 선별도구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의 진단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즉, 알코올 의존(dependence symptoms)에 관한 3문항, 해

로운 음주(harmful alcohol use)에 관한 3문항, 그리고 위험한 음주(hazardous alcohol use)에 대한 4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UDIT는 기존의 알코올 사용장애와 위험 음주 모두를 선별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있는 선별검사 도구이다.

각 문항들에 응답한 0점에서 4점 중의 값을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합하여 채점하도록 한다. 총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를 알코올 의존으로 선별하고 있다.

검사-재검사 결과 $r=.86$ 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AUDIT의 문항 및 단어의 순서를 바꾸었을 때에도 점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내적으로 일관된 신뢰도를 입증하였다.

2) 16PF(다요인 인성검사,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

16PF는 임상진단, 상담 장면, 심리치료 예후, 심리치료 효과 측정, 교육 장면, 산업장면, 직업진로 적성 상담 등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어왔다(염태호, 김정규, 2003). 염태호와 김정규(1990)는 Cattell의 16PF를 토대로 하여 한국 표준화한 검사인 '다요인 인성검사'를 제작하였고, 1999년에 지능(B요인), 불신(L요인)을 제외하여 개정판을 냈다.

다요인 인성검사의 14가지 성격척도는 다음과 같은데, 각 척도에서 T점수가 35이하이면 낮은 수준, 65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본다(염태호, 김정규, 2003).

- 1) 온정성 척도(A요인) : 높은 점수는 개방적이고 따뜻하며 사교적이고 낙천적인 성격(Warmth)을 의미하며 낮은 점수는 폐쇄적이고 냉정하며 비판적이고 내향적인 성격(Coolness)을 의미한다.
- 2) 자아강도 척도(C요인) : 높은 점수는 안정된 정서와 자아성숙, 현실적응

능력(High Ego Strength)을 의미하고 낮은 점수는 정서적 미성숙과 과민한 성격(Low Ego Strength)을 나타낸다. 알콜중독집단은 정상집단보다 약한 자아강도로 나타났다(이지숙, 1990).

- 3) 지배성 척도(E요인) : 높은 점수는 자기 주장적이고 공격적이며 지배적 성격(Dominance)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순종적이고 온순하며 소극적인 태도(Submissiveness)를 의미한다.
- 4) 정열성 척도(F요인) : 높은 점수는 정열적이고 낙천적이며 활기찬 성격(Surgency)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진지하고 심각하며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성격(Desurgency)을 의미한다.
- 5) 도덕성 척도(G요인) : 높은 점수는 도덕적이고 성실하며 책임감 있는 성격(High Superego)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덜렁대고 무계획적이며 믿을 수 없는 경솔한 성격(Low Superego)을 의미한다.
- 6) 대담성 척도(H요인) : 높은 점수는 대담하고 배짱이 있으며 모험적인 성격(Boldness)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소심하고 수줍으며 겁이 많은 태도(Shyness)를 의미한다.
- 7) 예민성 척도(I요인) : 높은 점수는 유연하고 다정다감하며 감상적인 성격(Touder mindedness)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강인하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성격(Tough mindedness)을 의미한다.
- 8) 공상성 척도(M요인) : 높은 점수는 공상적이고 사변적이며 비현실적인 성향(Imagination)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현실적이며 생활적이며 실제적인 성격(Practicality)을 나타낸다. 알코올중독환자들 공상성 점수가 낮게 나온다(Kodandaram, 1996).
- 9) 실리성 척도 (N요인) : 높은 점수는 이해 타산적이고 실리적이며 약삭빠른 성격(Shrewdness)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순진하고 꾸밈없으며 솔직한 태도(Naivete)를 의미한다.
- 10) 자책성 척도(O요인) : 높은 점수는 우울하고 걱정스러우며 죄책감에 사

로잡히는 경향(Guilt Proneness)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평온하고 자신 있으며 걱정 없는 태도(Untroubled Adequacy)를 의미한다.

11) 진보성 척도(Q1요인) : 높은 점수는 자유주의적 진보적 사고경향과 혁신적 개방적 세계관(Radicalism)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보수주의적 전통적 세계관과 수구적 태도(Conservatism)를 의미한다.

12) 자기 결정성 척도(Q2요인) : 높은 점수는 자기 충족적이며 자주적이고 자기의사 결정적인 성향(Self-Sufficiency)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집단 의존적이고 추종적이며 집단의사 결정적인 성향(Group Dependence)을 의미한다.

13) 자기 통제성 척도(Q3요인) : 높은 점수는 신중하고 통제적이며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성격(Self Control)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부주의하며 자기조절을 잘 못하여 느슨한 성격(Low Control)을 의미한다.

14) 불안성 척도(Q4요인) : 높은 점수는 불안하고 좌절되고 긴장된 경향(Anxiety)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편안하고 침착하며 여유 있는 성격(Relaxation)을 의미한다.

다요인 인성검사는 Cattell의 근원특성들을 중심으로 요인분석법을 통해 성격특성들을 추출하여 제작된 16PF를 토대로 염태호와 김정규(1990)가 한국 실정에 맞게 표준화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염태호와 김정규가 1999년에 다시 개정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16PF검사는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 가운데 하나이며, 거의 모든 성격범주를 포괄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성격이해에 매우 적합한 검사로 알려져 있다. 이 검사는 임상장면에서 정신과 환자들의 문제를 진단하는데도 활용되고 있는데, 성격의 개인차를 설명하는데 16PF검사는 유용한 예언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검사 신뢰도는 실리성 척도를 제외하고 모두 Cronbach α 값이 .50이상이고 교정된 Spearman-Brown 반분신뢰도 값은 .60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

다. 그리고 재검사 신뢰도는 진보성척도를 제외하고 모두 .80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염태호, 김정규, 1990)

다요인 인성검사는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되며, 척도로는 타당도 척도인 무작위 반응척도 및 14개의 성격척도들로 이루어져 있다.

3) 성격 차원 검사(EPQ)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는 Eysenck Personality Scale Adult(EPS)(Eysenck & Eysenck, 1991)를 이현수가 1985년 원저자와 공동으로 우리나라 표집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여러 하위척도들로 구성된다.

표 1. 다차원성격검사도구의 하위척도 및 척도 구성요인과 채점 기준

	문항		문항수
	예	아니오	
정신병적 경향성	예	26 46 48	12
	아니오	1 2 6 12 22 31 36 37 41	
외향성-내향성	예	5 8 11 17 20 24 27 30 35 43 45	12
	아니오	14	
신경증적 경향성	예	3 9 13 15 18 19 21 25 33 38 39 47	12
허위성	예	7 32 40	12
	아니오	4 10 16 23 28 29 34 42 44	

이 검사는 성격차원을 측정하는 성격검사로서, 강인성 혹은 정신병적 경향성(tough mindedness, psychoticism, P),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 E), 정서성 혹은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N) 및 허위성

(Lie)을 측정하는 4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다음과 같은 경향이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이현수, 2004).

- 1) 정신병적 경향성(P) : 공격적이고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동정심이 부족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해 매우 둔감하다. 또한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독창적이며 진귀한 물건을 수집하는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 2) 외향성내향성(E) : 사교적이고 많은 친구를 사귀며, 항상 기분이 좋고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모험심이 강하고 농담을 잘하며, 활동적이고 생기가 넘친다. 또한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 3) 신경증적 경향성(N) : 정신 신체적 질병을 자주 호소한다. 일단 손상된 정신상태는 쉽게 원상 복구되지 않고, 기분변화가 심해 쉽게 우울해지며, 비합리적이고 강직하다. 또한 사소한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 4) 허위성(L) : 솔직한 자신을 표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또한 자신의 습관이나 행동은 모두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치게 자랑하는 편이다. 또한 남의 잘못을 훈계하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한다.

각 문항은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며 문항에 대한 응답에 따라 1점을 받도록 되어 있다. 검사의 채점은 별도로 제작된 채점판에 표기된 문항수를 합하여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정신병적 경향성 .64, 외향성 .78, 신경증적 경향성 .78, 허위성 .78이다.

4)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개정된 대

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토대로 하여, 김정희와 이장호(1985)가 요인 분석 과정을 거쳐서 문항들 중 일부를 제외시키고, 일부는 수정 보완하여 검증한 62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대처방식의 하위차원으로 문제 중심적 대처(21문항), 정서 중심적 대처(23문항), 소망적 사고 대처(12문항) 그리고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6문항)가 있다.

① 문제 중심적 대처

문제 중심적 대처는 개인과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직면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대처행동이나 계획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의미한다.

②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사건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을 의미한다.

③ 소망적 사고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는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정서 중심적 대처

정서 중심적 대처는 문제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기 위하여 부적 정서와 반응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처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김정희(1987)의 입장을 받아들여, 개인의 노력이 외부로 투여되는 문제 집중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요인을 합하여 적극적 대처로, 노력이 자신의 사고나 감정으로 투여되는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요인을 묶어서 소극적 대처로 나누어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2. 대처방식 검사도구의 하위척도 및 척도 구성요인과 채점 기준

범 주		문 항 수	문 항	신뢰도
적극적 대처	문제중심적 대처	21	1, 2, 5, 6, 9, 19, 22, 25, 28, 29, 33, 34, 35, 37, 39, 46, 48, 50, 53, 59, 62	.87
	사회적지지 추구대처	6	8, 17, 21, 30, 42, 45	.68
소극적 대처	정서중심적 대처	23	3, 4, 7, 10, 11, 12, 13, 14, 15, 16, 18, 20, 23, 24, 27, 31, 32, 36, 40, 41, 43, 44, 47	.77
	소망적사고 대처	12	26, 38, 49, 51, 52, 54, 55, 56, 57, 58, 60, 61	.82
전 체		62	1 ~ 62	.91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의 형태로 사용하지 않음에 0점, 약간 사용에 1점, 어느 정도 사용에 2점, 아주 많이 사용함에 3점을 주어 각 대처방식별로 합산한다. 김정희, 이장호(1985)에서 수정 번안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7이었으며, 4개각 하위요인별의 신뢰도는 문제 중심적 대처가 .87, 정서 중심적 대처가 .77, 소망적 사고 대처가 .82 그리고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가 .68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5.0을 사용하였다. 알코올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에서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두 집단 간의 학력의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고, 학력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 두 집단 간에 교정된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공분산분석(ANCOVA)으로 살펴보았다. 알코올 중독집단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성별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의 성격특성과 대처방식 비교

알코올 중독집단이 대체로 일반 음주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학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을 비교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 간에 학력의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 집단의 알코올 선별검사점수 분석 결과

	집단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알코올 선별검사 (AUDIT)	알코올	113	27.77	8.10	22.106***
	일반 음주	201	7.74	7.02	
전체(N)		314			

표 3에서 나타난 알코올 선별검사점수에서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의 평균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집단 간 비교가 타당하다.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 간에 학력의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의 동질성 검증

	집단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학 력	알코올	113	12.61	3.09	-7.985***
	일반 음주	201	15.18	1.97	

*** $p < .001$

표 4에서 나타난 성격특성과 대처방식별로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 간에 학력의 동질성에서 일반 음주집단이 알코올 집단보다 학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성격특성 및 대처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력을 통제변인으로 넣고,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주 구분에 따른 두 집단의 학력을 통제한 교정된 성격특성이 두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두 집단에 따른 교정된 성격특성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성격요인	집단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온정성	알코올	109	31.81	4.52	3.094
	일반 음주	194	33.02	3.84	
자아강도	알코올	107	29.73	4.93	6.329***
	일반 음주	200	34.27	3.88	
지배성	알코올	110	30.73	3.73	0.42
	일반 음주	198	31.36	3.73	
정열성	알코올	108	29.64	5.37	2.172***
	일반 음주	199	32.24	4.83	
도덕성	알코올	111	34.02	4.9	1.32
	일반 음주	199	34.11	4.43	
대담성	알코올	110	28.94	5.69	0.004
	일반 음주	200	31.32	5.71	
예민성	알코올	108	30.57	4.34	0.049
	일반 음주	199	30.65	4.38	
공상성	알코올	111	26.78	4.08	0.653
	일반 음주	197	26.18	3.8	
실리성	알코올	110	29.57	3.21	.018**
	일반 음주	199	30.91	3.18	
자책성	알코올	112	31.69	5.4	2.488***

	일반 음주	200	27.71	4.68	
진보성	알코올	110	32.39	32.39	6.142
	일반 음주	199	33.46	33.46	
자기결정성	알코올	104	29.14	4.24	3.974
	일반 음주	190	28.68	3.65	
통제성	알코올	103	35.01	4.24	1.379
	일반 음주	194	35.4	4.03	
불안성	알코올	102	29.93	6.29	9.800***
	일반 음주	194	26.92	4.77	
정신병적경향성	알코올	109	14.69	1.94	0.819
	일반 음주	200	14.02	1.85	
외향성	알코올	110	17.82	3.1	2.124
	일반 음주	200	19.03	3.35	
신경증적경향성	알코올	110	18.2	3.49	.988***
	일반 음주	200	15.5	3.14	
허위성	알코올	109	17.2	2.9	3.998
	일반 음주	199	17.66	2.41	

** $p < .01$ * $p < .05$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력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 간에 교정된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16PF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격 하위요인은 자아강도, 정열성, 실리성, 자책성, 불안성이었으며, 성격차원검사(EPQ)의 하위성격요인은 신경증적 경향성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구분에 따른 두 집단의 학력을 통제한 교정된 대처방식이 두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두 집단에 따른 교정된 대처방식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성격요인	집단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문제중심적대처	알코올	100	35.93	9.81	5.841
	일반 음주	193	37.63	8.43	
사회지지추구대처	알코올	111	10.07	3.47	2.665
	일반 음주	196	10.4	3.15	
소망적사고대처	알코올	103	21.72	6.18	1.839
	일반 음주	197	20.69	5.61	
정서중심적대처	알코올	100	33.89	8.42	.816***
	일반 음주	192	28.56	9.12	

** $p < .01$ * $p < .05$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력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 간에 교정된 대처방식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정서중심적 대처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과 대처방식 비교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에 따라 학력의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학 력	알코올	68	12.720	3.170977	0.339
	일반 음주	46	12.521	3.009165	

표 7에서 나타난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에 따라 학력의 동질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성격특성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성격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알코올 중독집단의 남자와 여자를 독립변수로 성격특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성격특성 분석 결과

성격요인	집단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온정성	남자	66	30.76	4.50	-3.197**
	여자	44	33.45	4.07	
자아강도	남자	63	28.97	4.47	-2.025*
	여자	45	30.89	5.36	
지배성	남자	66	30.41	3.56	-1.097
	여자	44	31.20	3.96	
정열성	남자	66	29.24	5.39	-1.114
	여자	43	30.42	5.38	
도덕성	남자	66	33.65	4.51	-.928
	여자	46	34.52	5.37	
대담성	남자	65	28.34	5.68	-1.386
	여자	46	29.85	5.62	
예민성	남자	67	30.04	3.80	-1.670
	여자	42	31.45	4.97	
공상성	남자	67	26.96	3.96	.480
	여자	45	26.58	4.24	
실리성	남자	67	29.18	3.27	-1.590
	여자	44	30.16	3.02	
자책성	남자	68	32.43	4.57	1.806
	여자	45	30.58	6.30	
진보성	남자	65	32.37	2.81	-.072
	여자	46	32.41	3.59	
자기결정성	남자	61	29.11	3.79	-.026
	여자	44	29.14	4.82	

자기통제성	남자	60	34.82	3.70	-.441
	여자	44	35.20	4.90	
불안성	남자	60	30.72	5.24	1.467
	여자	43	28.79	7.38	
정신병적 경향성	남자	66	14.80	2.04	.681
	여자	44	14.55	1.78	
외향성	남자	66	17.64	3.40	-.677
	여자	45	18.02	2.59	
신경증적 경향성	남자	65	18.57	3.59	1.240
	여자	46	17.74	3.30	
허위성	남자	64	17.13	2.54	-1.846
	여자	46	18.09	2.90	

** $p < .01$ * $p < .05$

표 8에서 나타난 성격특성 변인별로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성격특성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온정성과 자아강도수준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알코올 중독집단의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온정성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자아강도수준에서 남성 집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격특성 중 온정성과 자아강도 변인에서 남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대처방식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대처방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알코올 중독집단의 남자와 여자를 독립변수로 대처방식을 종속변수로 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대처방식 분석 결과

대처방식요인	집단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문제중심적대처	남자	59	35.36	8.01	-.651
	여자	42	36.64	11.88	
사회지지추구대처	남자	66	9.98	3.08	-.239
	여자	46	10.15	3.98	
소망적사고대처	남자	63	21.43	5.16	-.540
	여자	41	22.10	7.48	
정서중심적대처	남자	62	33.55	7.43	-.483
	여자	38	34.45	9.90	

표 9에서 나타난 대처방식 변인별로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별 대처방식 네 변인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알코올 중독집단의 대처방식에서 남녀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의 판별변인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가장 잘 구분해주는 변인을 찾기 위하여, 성격특성의 하위요인(온정성, 자아강도, 지배성, 정열성, 도덕성, 대담성, 예민성, 공상성, 실리성, 자책성, 진보성, 자기결정성, 자기통제성, 불안성,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허위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종속변수로 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두 집단 특성을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판별함수를 도출하고,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Wilk's Lamda가 최소가 되게 하는 단계적 판별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성격특성이 집단 특성을 구별하는 기능에 대한 단계적 판별분석 결과

독립변수	Wilk's Lamda(p)	n^2	판별함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
			함수 1
자아강도	.821(.00)	0.179	0.877
신경증적경향성	.813(.00)	0.187	-0.81
진보성	.807(.00)	0.193	0.261
고유값			0.27
설명분산			100
Rc(Rc ²)			0.461
Wilk's Lamda(p)			.787(.000)

판별분석을 적용한 결과, 자아강도, 신경증적 경향성, 진보성의 순으로 투입되었다. 독립변수의 수가 추가됨에 따라 단계별 Wilk's Lamda값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판별의 기능이 더욱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아강도 요인이 집단을 판별하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신경증적 경향성, 진보성 요인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구분하는 함수 1은 전체변량의 100%를 설명하고 있으며, 판별함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는 Wilk's Lamda값은 .787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함수 1에서 자아강도, 신경증적 경향성, 진보성 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두 집단을 판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의해 두 집단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분류될 수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판별분석의 분류 결과

	예측된 집단	
	알코올집단	일반집단
알코올집단(N=)	74(71.2%)	30(28.8%)
일반집단(N=)	46(23.4%)	151(76.6%)
분류 정확률	74.80%	

함수에 의해 표본을 분류한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분류하는 전체적인 분류 정확률은 78.7%였다.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알코올 중독자와 일반 음주자의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을 비교해보고 알코올 중독집단내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여러 성격 요인들 중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성격 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음주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병원이나 알코올 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중독집단과 알코올 중독치료 경험이 없는 일반 음주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특성을 비교하였고, 알코올 중독 집단을 다시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서 성별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을 비교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가장 잘 구분해 줄 수 있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학력수준의 영향을 통제된 후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 간에 교정된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수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16PF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격하위요인은 자아강도, 정열성, 실리성, 자책성, 불안성이었으며, 성격차원검사(EPQ)의 하위성격요인은 신경증적 경향성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대처방식에서는 정서중심적 대처수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성격특성 중 일반 음주집단이 알코올 중독집단보다 자아강도와 정열성, 실리성 요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책성, 불안성, 신경증적 경향성 요인에서 알코올 중독집단이 일반 음주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알코올 중독집단이 자아강도, 자기통제성에서 낮게 나타나고, 자책성과 불안성에서 높게 나

타난 이지숙(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충동적이고 미숙한 정서와 불안정성을 나타낸다고 한 조성남, 이대희(1984)의 견해와 책임감 또는 자기 통제력이 약하게 나타난 이병윤(1982)의 보고와 일치하며, 신경증적 경향성이 음주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배경미(200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16PF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자아강도, 정열성, 실리성, 자책성, 불안성 요인을 살펴보면, 자아강도요인의 낮은 점수는 정서적 미성숙과 과민한 성격을 나타내고, 정열성 요인의 낮은 점수는 진지하고 심각하며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성격(Desurgency)을 의미하며, 실리성 요인의 낮은 점수는 순진하고 꾸밈없으며 솔직한 태도(Naivete)를 의미한다. 자책성 요인의 높은 점수는 우울하고 걱정스러우며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향을 나타내고, 불안성 요인의 높은 점수는 불안하고 좌절되고 긴장된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알코올 중독집단은 일반 음주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서적으로 덜 성숙하고 과민하며 진지하고 심각할 가능성이 있고, 꾸밈없는 순진성의 경향성, 우울, 걱정, 죄책감과 자책,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기 쉬우며, 정신 신체적 질병을 자주 호소하고 기분변화가 심하고 비합리적이며 강박함의 경향성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McCrae와 Costa (1984)는 외향성은 정적인 정서와 상관이 있고 신경증적 경향성은 부적인 정서와 상관이 있다고 하였는데, 알코올 중독집단에서 신경증적 경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 부적 정서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경증적 경향성으로 인한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적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음주를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 대처방식 중 알코올 중독집단이 일반 음주집단보다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 중심적 대처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을 취할수록 음주할 빈도가 높고 문제 중심적 대처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방식을 취할수록 음주할 빈도가 낮다는 이춘희(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알코올 중독자가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대처나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 노력보다는 문제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 부적 정서를 음주행동으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적극적 대처방식이 사회 적응적인 심리상태와 관련 있음을 연구한 한성열 외(2001)의 연구 보고를 지지해준다.

둘째, 알코올 중독집단을 다시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성별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을 비교하였을 때, 성격특성에서 온정성과 자아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온정성과 자아강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처방식에서 알코올 중독집단내의 성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연구문제 2). 중독 전 성격으로서 남성에게는 행동통제 부족이, 여성에게는 부적 정서성이 나타나고, 남성에게 있어서 여성보다 소질적 특성이 음주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여성은 주로 부적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음주하게 된다는 김인석(2001) 연구와 같이, 알코올 중독 남성에서 더 낮은 온정성과 자아강도의 성격특성이 나타난 것은 여성보다 음주문제에 더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대처방식에 있어서 알코올 중독 남성과 여성 모두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려는 적극적 대처 노력보다는 문제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 부적 정서를 소극적 대처인 정서 중심적 대처로 반응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잘 구분해주는 변인은 자아강도, 신경증적 경향성, 진보성 요인이었다(연구문제 3). 이 변인들은 알코올 중독 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강도의 낮은 점수는 정서적 미성숙과 과민한 성격을 나타내고, 신경증적 경향성요인은 정신 신체적 질병을 자주 호소하고, 일단 손상된 정신 상태는 쉽게 원상 복구되지 않고, 기분변화가 심해 쉽게 우울해지며, 비합리적이고 강직하며, 사소한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함을 의미하며, 진보성의 낮은 점수는 보수주의적 전통적 세계관과 수구적 태도를 의미한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 낮은 자아강도로 인하여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을

직면하기보다 술을 마시는 선택을 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고 음주행동으로 대처해버리는 경향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알코올 중독집단이 일반음주 집단보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사소한 스트레스에 과민하며 강직하고 개방적이기 보다 보수적인 성격의 경향을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는 낮은 자아강도와 진지하고 심각한 경향과 약삭 빠르지 않은 순진함, 자책과 불안, 신경증적 경향성, 그리고 낮은 진보성의 성향을 보임으로써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그의 주장이나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해주면서 이를 수용해줌으로써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정규, 2000). 또한 알코올 중독자들의 취약함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잘 기능하지 못 하기 쉬우므로, 구체적이고 적응적인 사회적 기술 및 자기주장 훈련, 건강한 대처방식으로 반응하고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가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Vaillant는 알코올과 같은 물질 사용장애가 동반되는 환자에 대한 치료의 6가지 규칙을 제안했다. 첫째, 환자를 자문할 때 중독자는 자기애적이나 히스테리적이라고 불리어지지 않아야 한다. 고통에 있을 때, 모든 인간은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자기애적으로 행동한다. 둘째, 인격이 장애가 있는 중독자는 통찰이나 비판보다는 직면, 제한, 그리고 구조화된 형태를 필요로 한다. 셋째, 치료자는 중독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고통을 야기한 행동에 관한 책임은 거절해야 한다. 넷째, 인격장애를 지닌 중독자는 집단의 지지로부터 큰 도움을 얻는다. 중독환자의 프로그램은 환자가 새로운 경험을 찾는 높은 욕구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자극을 제공해야하며 특히 알코올 중독환자는 해로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치료자는 외과의사나 교도관의 역할보다는 환자와 문제를 함께 하는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치료자는 중독과 인격장애는 역동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청소년들처럼 인격장애를 가

진 중독자는 시간이 지나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친구로부터 도움 받을 수도 있다.

이상으로 알코올 중독집단과 일반 음주집단의 성격특성과 대처방식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으며, 알코올 중독 집단 내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두 집단을 잘 구분해주는 변인을 확인하였다. 이는 알코올 중독집단의 성격과 대처방식을 이해하고 그들의 적응을 지도해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하며, 예방과 치료적 중재를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조사의 표집대상이 일부지역의 알코올 중독 집단과 일반음주 집단에 국한되었으므로 조사결과를 확대해석할 수 없다.

둘째, 알코올 중독자의 심리적 특성상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자신의 상태와 문제 대처방식을 과장하거나 확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성격 요인과 대처방식 관계를 의미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찰, 면접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를 통해서만 연구가 수행되어 한계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현식(2005). 알코올 중독의 재발과 관련 있는 심리적 특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동인(2006).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 양태와 성격장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재(1995). 알코올리즘의 재발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연석(2001). 음주 및 음주문제의 위험요인과 취약성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재(1999). 교사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석(2001). 음주 및 음주문제의 위험요인과 취약성요인에 관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중성, 박병강, 김갑중(2001). 알코올의존환자들의 병식상태와 퇴원 후 1년간 단주 성적의 관련성. 가정의학회지, 22(7).
- 김정규(2000). 다요인 인성검사 실시요강. 한국가이던스
- 김정규, 염태호(1992). 16PF(다요인 인성검사)의 이해와 활용. 한국가이던스
- 김정윤(2008). 여성알코올 중독자의 스트레스 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희, 이장호(1985).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구성요인 및 우울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행동과학 연구. 7, 127-138
- 김중술(1998).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진훈, 김길숙, 오동렬, 김종우(2002). 기질 및 성격특성과 알코올의존의 관련성. 중독정신의학, 6(2), 95-101.
- 류경희(1997). 가족력, 대처 방식, 음주 기대 및 동기가 청소년의 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민성길(1995). 『최신정신의학(제3판)』. 서울: 일조각.
- 박문희(1994). 알코올 의존 환자의 스트레스 지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통제 소재가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숙 외(1995).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이화의대지 제18권 제4호.
- 박종섭, 이재원, 구미량, 박성국, 황상중(2004). 알코올 의존환자의 자아방어 기제에 대한 연구. 중독정신의학, 8(1), 34-9.
- 박종순(2000). 대학생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경미(2003). 성격특성과 권태성향 및 음주행동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기청(1991). 한국 성인남자 알코올 중독환자에서 Aldehyde Dehydrogenase-1 유전자형과 음주습관, 병력, 성격특성 및 환경적 요인과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성상경(1999). 여성 알코올 의존 환자의 임상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8(6), 1262-72.
- 성승모(2002). 한국판 기질과 성격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Compr 정신의학, 43, 235-243
- 신행우(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은주(1992).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정남(1992). 알콜중독환자의 가족치료적 접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염태호(1990). 성격의 유형과 특성. 학생생활연구, 경희대학교. 7, 149-198.
- 염태호, 김정규(1990). 성격요인검사. 실시요강과 해석방법. 서울: 한국심리적성연구소.
- 윤영주, 노승호(2003). 알코올의존환자 유형간 성격평가 질문지 척도의 비교. 중독정신의학, 7(1), 28-36.
- 윤해주, 이민규, 이태경, 이종일(2004). 알코올 중독 환자들의 성격특성에 관한 탐색. 중독정신의학, 8(2), 142-8.
- 이길홍(1973). 한국인의 습관성 음주와 알콜정신병, 한국의과학, 5(8).
- 이민규(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pp. 165-179.
- 이병윤(1982). 현대정신의학. 일조각
- 이소우, 김성재(1996). 알코올리즘 환자의 성격유형과 음주양태, 음주결과 기대, 결과사건과의 관계. 대한심신스트레스학회지, 4(2), pp. 10-22.
- 이정균(1987). 정신의학. 일조각
- 이지숙(1991). 알코올중독자와 그 자녀의 성격 유사도 및 자녀의 스트레스 정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춘희(2007).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대구한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수(2004).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이택중, 백기청, 박신, 이철원, 김정래(1991). 한국인 남자에서 Aldehyde Dehydrogenase-1의 변이와 알코올 민감성, 음주습관 및 알코올중독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의학, 16(2).
- 정왕용(1995).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요인.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성남, 이대희(1984). 알콜리즘 환자의 인격특성에 관한 연구-MMPI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23(4), 452-461.
- 천주의 성요한 알콜상담치료센터(1993), 『회복에 이르는 길』. 하나의학사.
- 최낙천(1997). 성격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탁진국(2000). 개인의 성격특성과 생활사건이 음주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 pp. 73-83.
- 통계청(2008). 한국의 사회조사보고서(음주).
- 한성열, 허태균, 김동직, 채정민(2001). 스트레스상황 특성에 따른 적응적인 대처양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3).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AUDIT: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 Second Ed., World Health Organization.*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 - Hall.
- Billings, A. G., & Moos, R. H. (1981). *The role of coping responses and social resources in attenuating the impact of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157.
- Billings, A. G.,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Blane, H. T. (1968). *The Personality of the Alcoholic, Guides of Dependency*. New York, Harper & Row. 이재광(1997). 알코올리즘의 개인정신치료. 중독정신의학, 1(1), 40-46에서 인용.
- Brown, S. A., Goldman, M. S., Inn, A., & Anderson, L. R. (1995). *Expectations of reinforcement from alcohol : Their domain and relation to drinking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Clinical Psychology*, 48(4), 419-426.
- Cadoret, R. J., Yates, W. R., Troughton, E., Woodworth, G. & Stewart, M. A. (1995). *Adoption study demonstration two genetic pathways to drug abus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 42-52.
- Cappell & Greeley, J. (1987). *Alcohol and tension reduction: An update on research and theory*, H. T. Blane K. X. Leonard(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Y.: Guilford.
- Cattell, R. B. (1945). *The description of personality: principles and findings in a factor analysis*.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58(1) 69-90.
- Cattell, R. B. (1957). *Personality and Motivation Structure and Measurement*, Yonkers, New York: World Book Company.
- Cattell, R. B., Eber, K. W., & Tatsuoka, M. M. (1970). *Handbook for the Sixteen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16PF)*. Institute Personality and Ability Testing, Inc., Champaign, Illinois.
- Carver, C. S., Scheier, M. F. (2000). *Perspectives on Personality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 Chafetz M. (1973). *A positive view of alcoholism American handbook of psychiatry*(ed, by Arieti, S), 3 N.Y., Mc-Grow-Hill.

- Cloninger, C. R. (1983).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alcoholism. Journal of Psychiatric Treatment and Evaluation, 5, 487-496.*
- Cloninger, C. R. (1986). *A unified biosocial theory of personality and its role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states. Psychiatric Development, 4, 167-226.*
- Cloninger, C. R., Rzybeck T. R., Svrakic D. M. (1991).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U. S. normative data. Psychology Rep, 69, 1047-57.*
- Cloninger, C. R., Reich, T., Sigvordsson, S., Von Knorring, A., Bohman, M. (1998). *Effect on changes in alcohol use between generations on inheritance of alcohol abuse. In: Alcoholism: Origins and outcome. Ed by Rose RM, barrett J, NEW york, Raven Press, p.49-74.*
-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Frone M. R., Mudar P. (1992). *Coping, Expectancies and Alcohol Abuse : A test of social learning formul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139-52.*
- Cox, W. M.(ed.) (1987). *Treatment and Prevention of Alcohol Problems: A Resource Manual. Orlando, FL: Academic Press, 344-350.*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91). *The manual of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s. London : Hodder & Stoughton.*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 219-239.*

- Golden, C. J. (1979). *Clinical Interpretation of Objective Psychological Tests*. Grune & Stratton: New York.
- Holahan, C. J. & Moos, R. H. (1987).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46-955.
- Irwin, M., Schuckit, M., Simth, T. L. (1990). *Clinical importance of age at onset in Type 1 and Type 2 primary alcoholics*. *Archive of General Psychiatry* 47, 320-324.
- Kaij, L. (1960). *Alcoholism in twins*.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 Karson, S. and O'Dell, L. W. (1976). *Clinical Use of the 16PF*. Institute for Personality and Ability Testing Champaign: Illinois.
- Kobasa, S. C. (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1.
- Kodandaram, P. (1996). *A study of personality of alcohol dependent individuals and their spouses*. *Journal of Personality & Clinical Studies*. 12(1-2).
- Lazarus R. S.,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azarus R. S., Launier. R. (1978). *Stress-related tran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L. A. Pervin & Lewis(Eds.),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New York: Plenum.
- Martin, E. D., Sher K. I.(1994).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alcohol use disorders and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Journal*

- of studies on Alcohol, 55(1), 81-90.*
- McCrae, R. R., & Costa, P. T. (1984). *Emerging lives, enduring dispositions: Personality in adulthood.* Boston: Little, Brown.
- Menaghan, E. (1982). *Measuring coping effectiveness: A Panel analysis of marital problems and effor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220-234.*
- Merikangas, R. P., Leckman J. F., Prusoff B. A. (1985). *Familial transmission of depression and alcoholism.*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367-372.*
- Moos, R. H. & Billings. A. G. (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e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 Clinical Aspects, Goldberger, L., & breznitz, S. eds., New York: The Free Press.*
- Nathan, P. E. (1988) *The addictive personality is the behavior of the addic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183-189.*
- Nathan, P. E, O'Brien J. S. (1971). *An experimental analysis of the behavior of alcoholics and nonalcoholics during prolonged experimental drinking ; A necessary precursor of behavior therapy ; Behavior therapy, 2, 455-476.*
- Nerviano, V. J. & Gross, H. W. (1983). *Personality types of alcoholics on objective inventorie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4(5), 837-851.*
- Parkes, K. R. (1986). *Coping in stressful episodes: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77-1292.*

- Pattison, E. M. (1984). *Types of alcoholism reflective of character*. In M. R. Zales(Ed), *Character pathology: Theory and treatment*, 61-84, New York: Brunner/Mazel.
- Pearlin, L. J. & C. Schooler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Peterson, J. B., Weiner D., Phil R. O. & Finn, P. R. (1991).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and the inherited risk for alcoholism*. *Addictive Behaviors*, 16(6), 549-554.
- Pfohl, B., Coryell W., Zimmerman M., Stangl K. (1986). *DSM-III Personality disorders : diagnostic overlap and internal consistency of individual DSM-III criteria*. *Compr Psychiatry*, 27, 21-34.
- Sher, K. J. & Trull, T. J. (1994). *Personality and disinhibitory psychopathology : Alcoholism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92-102.
- Stacy, A. W., Newcomb, M. D., & Benter, P. M.(1991). *Personality, problem drinking, and drunk driving; mediating, and direct-effect model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427-48.
- Svrakic D. M. Whitehead C, Przybeck T. R, Cloninger C. R. (1993). *Differential diagnosis of personality disorders by the seven factor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91-999.
- Vaillant, G. (1983). *A developmental view of old and new perspective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1, 146-156.
- Wheaton, B. (1983). *Stress, personal coping resources, and psychiatric*

symptoms: An investigation of interactive model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208-229.

Wills, T. (1995). *Parental Education Related to Adolescent Stress -Coping and Substance Use, Health Psychology, 14(5).*

Zaninelli R. M, Porjesz B, Begleiter H. (1992). *The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 in males at high and low risk for Alcoholism. Alcohol Clinical Experimental Research, 16(1), 68-70*

Zuckerman, M. (1983). *A biological theory of sensation seeking. In M. Zuckerman(Ed.), Biologic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impulsivity and anxiety. Hillsdale, NJ: Erlbaum.*

ABSTRACT

A Study on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Coping Types of Alcoholics

Joo-You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stress coping style of alcoholics and social drinkers. the results will be helpful for treating and intervening alcoholics.

The subjects were 114 alcoholics(68 males, 46 females) who were recruited from two different hospitals and eight alcohol counseling centers and 201 social drinkers(99 males, 102 females) in South Korea. They were administered self reported questionnaires such as The Sixteen Personality Factor(16PF) Questionnaire, Eysenck Personality Scales, and Folkman & Lazarus(1988)'s The Way of Stress Coping Checklist.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15.0 computer program using t-test, ANOVA, and discriminant Analysis to show the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etc..

Major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lcoholics and social drinkers in emotional stability, liveliness, privateness, apprehension, tension, neuroticism factor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focused coping in stress coping style .

Second, there are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warmth and emotional stability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female alcoholics than male alcoholics.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alcoholics.

Third,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emotional stability, neuroticism, and openness to change factor are discriminant variables between alcoholics and social drinker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know it is important to increase problem-focused coping and social support coping, and decrease emotional-focused coping in therapy and counseling.

부 록

부록 1. 개인 배경 질문지

부록 2. 알코올선별검사 (AUDIT)

부록 3. 16PF (다요인 인성검사)

부록 4. 스트레스 대처방식검사

부록 5. 아이젠크 성격검사(EPQ)

부록 1. 개인 배경 질문지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만 _____ 세
3. 교육정도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이하 ③ 고졸 이하 ④ 대졸 이상
4.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배우자와 함께 산다)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⑥ 재혼 ⑦ 이성과 동거
5.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기타종교 ⑤ 종교 없음

부록 2. 알코올선별검사 (AUDIT)

1.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마셨습니까)?
(0) 전혀 마시지 않는다 (1) 월 1회 미만 (2) 월 2-4회 (3) 주 2-3회
(4) 주 4회 이상
2. 평소 술을 마시는 날 몇 잔 정도나 마십니까(마셨습니까)?
(0) 1-2잔 (1) 3-4잔 (2) 5-6잔 (3) 7-9잔 (4) 10잔 이상
3. 한번 술을 마실 때 소주 1병 또는 맥주 4병 이상의 음주는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0) 전혀 없음 (1) 월 1회 미만 (2) 월 1회 (3) 주 1회 (4) 거의 매일
4. 지난 1년간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 전혀 없음 (1) 월 1회 미만 (2) 월 1회 (3) 주 1회 (4) 거의 매일
5. 지난 1년간 평소 같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 전혀 없음 (1) 월 1회 미만 (2) 월 1회 (3) 주 1회 (4) 거의 매일
6. 지난 1년간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해장술을 마신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 (0) 전혀 없음 (1) 월 1회 미만 (2) 월 1회 (3) 주 1회 (4) 거의 매일
7.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 전혀 없음 (1) 월 1회 미만 (2) 월 1회 (3) 주 1회 (4) 거의 매일
8.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0) 전혀 없음 (1) 월 1회 미만 (2) 월 1회 (3) 주 1회 (4) 거의 매일
9.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치게 한 적이 있습니까?
 (0) 없음 (2)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음 (4) 지난 1년간 있었음
10. 가족이나 친구,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0) 없음 (2) 있지만, 지난 1년간에는 없었음 (4) 지난 1년간 있었음

부록 3. 16PF (다요인 인성검사)

※이 검사는 당신의 관심과 성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들이 당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것입니다. 성격이란 사람마다 다를 뿐 아니라 그 자체로서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실한 성격을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답은 아래의 다섯 가지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O표 해주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떠오르는 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마시고 모두 대답해주십시오.

번호	질문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편이다.	1	2	3	4	5
2	어려운 일에 부딪쳐도 좀처럼 좌절하지 않는다.	1	2	3	4	5
3	남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한 비판을 되도록 삼간다.	1	2	3	4	5
4	나는 쾌활하고 떠들썩한 편이다.	1	2	3	4	5

5	나는 사람은 좋은데 좀 덜렁거린다는 평을 듣는다.	1	2	3	4	5
6	모임에 나가면 비교적 사람 앞에 나서는 편이다.	1	2	3	4	5
7	건축설계보다 소설 쓰는 일이 더 재미있을 것 같다.	1	2	3	4	5
8	나는 어디가면 무슨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지 잘 안다.	1	2	3	4	5
9	월급생활보다 수입이 다소 불규칙하더라도 목돈 버는 일이 좋겠다.	1	2	3	4	5
10	왠지 모르게 막연한 위기감이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1	2	3	4	5
11	우리사회는 혁신과 개혁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들이 더 필요하다.	1	2	3	4	5
12	남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나 나름의 인생을 살아가는 편이다.	1	2	3	4	5
13	남과 얘기할 때 생각을 일단 정리하고 나서 말한다.	1	2	3	4	5
14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	1	2	3	4	5
15	외딴 곳보다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에 살고 싶다.	1	2	3	4	5
16	가끔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	1	2	3	4	5
17	상대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따끔하게 책망한다.	1	2	3	4	5
18	나는 자주 놀러 다니는 편이다.	1	2	3	4	5
19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1	2	3	4	5
20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당황한다.	1	2	3	4	5
21	길 가다가 화가가 그림 그리는 것을 보면 좀 구경하고 가겠다.	1	2	3	4	5
22	연극이나 음악, 오페라 등에 대하여 글을 쓰는 일이 재미있을 것 같다.	1	2	3	4	5
23	거칠고 반항적인 사람보다 예의바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	1	2	3	4	5
24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면 매우 실의에 빠진다.	1	2	3	4	5
25	정부의 발표는 거의 믿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6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1	2	3	4	5
27	방은 항상 깔끔히 정리하고 무엇이든 곧 찾아낼 수	1	2	3	4	5

	있게 해 놓는다.					
28	항상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1	2	3	4	5
29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30	내가 계획했던 목표는 항상 달성했다.	1	2	3	4	5
31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단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32	다른 사람들에 비해 친구가 적은 편이다	1	2	3	4	5
33	어지럽게 물건들이 널려 있는 방을 보면 불쾌하다.	1	2	3	4	5
34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35	취미생활로서는 뭘 만들기보다 음악 감상이 더 좋다.	1	2	3	4	5
36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재미있을 것 같다.	1	2	3	4	5
37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다.	1	2	3	4	5
38	윗사람이 부르면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1	2	3	4	5
39	부모와 의견이 다를 때 반드시 부모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	1	2	3	4	5
40	남이 나를 유별나게 보거나 이상하게 여겨도 상관없다.	1	2	3	4	5
41	남들이 인정할 정도로 매사를 잘 처리하는 편이다.	1	2	3	4	5
42	조금이라도 일이 뜻대로 안되면 초조하고 속이 탄다.	1	2	3	4	5
43	직장이나 모임에서 곧잘 간부로 뽑히는 편이다.	1	2	3	4	5
44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거나 섭섭하게 대한 경우가 있다.	1	2	3	4	5
45	나에게는 확실히 남들보다 뛰어난 면도 있다.	1	2	3	4	5
46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많아야 신이 난다.	1	2	3	4	5
47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 항상 그 일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 본다.	1	2	3	4	5
48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주눅이 든다.	1	2	3	4	5
49	역사실록이나 전쟁사 같은 책보다 차라리 순수문예 작품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50	평범한 사람들은 깊이가 없어서 싫다.	1	2	3	4	5

51	예절 같은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1	2	3	4	5
52	남이 욕을 하거나 미워해도 별로 동요하지 않는다.	1	2	3	4	5
53	고정 급료를 받는 일보다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일을 하고 싶다.	1	2	3	4	5
54	무슨 일을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기보다 차라리 혼자서 하겠다.	1	2	3	4	5
55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만 안심된다.	1	2	3	4	5
56	다른 사람에게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57	초등학교 선생님보다는 등대지기가 더 재미있을 것 같다.	1	2	3	4	5
58	남들이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일이 있다.	1	2	3	4	5
59	나는 예의바르고 조용한 성격이다.	1	2	3	4	5
60	축제나 파티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1	2	3	4	5
61	나는 무슨 일이건 철저히 하는 성미다.	1	2	3	4	5
62	모임에서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듣는 쪽이다.	1	2	3	4	5
63	같은 조건이라면 엔지니어 직종보다는 청소년 진로 상담을 하겠다.	1	2	3	4	5
64	자주 어떤 생각에 몰두하여 현실을 잊어버린다.	1	2	3	4	5
65	여행을 간다면 혼자 계획하지 않고 남의 조언을 받겠다.	1	2	3	4	5
66	상을 받거나 칭찬을 들으면 당황한다.	1	2	3	4	5
67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나 전통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1	2	3	4	5
68	내가 하는 일에는 남의 조언이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1	2	3	4	5
69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70	이것저것 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1	2	3	4	5
71	남의 생일이나 명절 때 선물 사러 다니는 일은 귀찮게 느껴진다.	1	2	3	4	5
72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	1	2	3	4	5
73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에게 중요하다고 여겨	1	2	3	4	5

	지는 말을 해준다.					
74	자유 시간에는 친구들과 농담하며 즐겁게 보낸다.	1	2	3	4	5
75	치밀함과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76	어떤 모임에도 쉽게 어울리는 편이다.	1	2	3	4	5
77	감상적인 음악보다 신나는 음악이 좋다.	1	2	3	4	5
78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1	2	3	4	5
79	대인관계가 서투르며 약삭빠르지 못하다.	1	2	3	4	5
80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죄를 진 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1	2	3	4	5
81	토론에서는 인간적인 화해보다도 옳은 의견을 가려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2	3	4	5
82	함께 공부하는 것보다 참고서를 보며 혼자 하는 것이 낫다.	1	2	3	4	5
83	무슨 일이든 하기 전에 항상 신중히 생각한다.	1	2	3	4	5
84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1	2	3	4	5
85	같은 조건이라면 연구직보다 판매직을 택하겠다.	1	2	3	4	5
86	두고두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일도 막상 시작하려면 자신이 없어진다.	1	2	3	4	5
87	성공할 확률이 적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밀고 나갈 때가 있다.	1	2	3	4	5
88	짓궂은 장난을 좋아한다.	1	2	3	4	5
89	일을 능률적으로 잘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1	2	3	4	5
90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대개 나에게 돌아온다.	1	2	3	4	5
91	좋은 집 한 채보다 좋은 시 한편이 더 가치가 있다.	1	2	3	4	5
92	사상이나 예술에 관심이 있다.	1	2	3	4	5
93	남이 노리는 것을 쉽게 알아챈다.	1	2	3	4	5
94	내 인생을 되돌아 볼 때 별로 이루어놓은 것이 없다.	1	2	3	4	5
95	옛 관습에 구애받지 말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1	2	3	4	5
96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 하는 편이다.	1	2	3	4	5

97	일단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편이다.	1	2	3	4	5
98	자주 머리가 아프다.	1	2	3	4	5
99	장부정리나 기록을 하는 일보다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 더 좋겠다.	1	2	3	4	5
100	일을 할 때 주위에서 어지간히 소란해도 잘할 수 있다.	1	2	3	4	5
101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받으러 오는 일을 하고 싶다.	1	2	3	4	5
102	떠들썩한 파티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취미생활이나 하겠다.	1	2	3	4	5
103	무슨 일이나 완벽하게 하는 편이다.	1	2	3	4	5
104	나는 외향적이고 사람을 잘 사귀는 편이다.	1	2	3	4	5
105	과학보다는 문학을 더 좋아한다.	1	2	3	4	5
106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	1	2	3	4	5
107	대인관계에서 예의를 잘 지킨다.	1	2	3	4	5
108	쉽게 우울해지는 편이다.	1	2	3	4	5
109	전해 내려오는 관습이 사리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다.	1	2	3	4	5
110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주위사람들과 의논한다.	1	2	3	4	5
111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편이다.	1	2	3	4	5
112	뭔지 모르게 늘 불안하다.	1	2	3	4	5
113	모임에 나가느니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겠다.	1	2	3	4	5
114	어수선한 꿈 때문에 깊이 잠을 못 잔다.	1	2	3	4	5
115	무슨 일이나 반드시 내 의견을 반영시키고 싶다.	1	2	3	4	5
116	다소 위험해도 다양하고 활동적인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117	한 가지 일에 집념이 강한 편이다.	1	2	3	4	5
118	일할 때 다른 사람이 둘러서서 구경하면 거북스럽다.	1	2	3	4	5
119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다.	1	2	3	4	5
120	나는 다소 비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다.	1	2	3	4	5
121	대인관계에서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편이다.	1	2	3	4	5

122	하찮은 일을 가지고 골똘히 생각하기도 한다.	1	2	3	4	5
123	전통을 지키기보다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야 한다.	1	2	3	4	5
124	혼자서 결정하기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편하다.	1	2	3	4	5
125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일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126	쉽게 초조해 하거나 안달하는 편이다.	1	2	3	4	5
127	남들과 타협하기를 싫어하는 편이다.	1	2	3	4	5
128	남들 앞에서 실수한 일이 있어도 쉽게 잊을 수 있다.	1	2	3	4	5
129	나는 고집이 있는 편이다.	1	2	3	4	5
130	농담을 잘 하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1	2	3	4	5
131	나는 매사에 빈틈이 없는 편이다.	1	2	3	4	5
132	나는 정열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133	공상이나 상상을 즐기는 편이다.	1	2	3	4	5
134	신앙과 종교에 관심이 있다.	1	2	3	4	5
135	계산에 밝은 사람은 꺼려진다.	1	2	3	4	5
136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주 후회를 한다.	1	2	3	4	5
137	반드시 자녀를 낳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38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1	2	3	4	5
139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일은 별로 없다.	1	2	3	4	5
140	몸이 떨리고 늘 긴장되어 있다.	1	2	3	4	5

부록 4. 스트레스 대처방식검사

※ 다음은 당신이 생활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스트레스사건에 대한 대처행동을 나열하였습니다. 아래 적으신 스트레스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일을 다루어 나가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각 항목에 O표해 주십시오.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사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나는

번호	질문문항	사 용 하 지 않 음	조 금 사 용	주 로 사 용	아 주 많 이 사 용
1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념한다 -다음 단계의 준비	0	1	2	3
2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것을 자세히 분석한다.	0	1	2	3
3	그 일을 잊기 위하여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0	1	2	3
4	시간이 지나면 사건(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다.)	0	1	2	3
5	그 일(또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바람직한 것을 얻어내려고 협상하거나 타협한다.	0	1	2	3
6	잘 안 되리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무엇인가 해보기로 한다.	0	1	2	3
7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도록 시도해 본다.	0	1	2	3
8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0	1	2	3
9	자신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는다.	0	1	2	3
10	최후의 수단을 쓰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다.	0	1	2	3
11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0	1	2	3
12	운으로 돌린다 : 때로는 운이 나쁠 때도 있으니까.	0	1	2	3
13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군다.	0	1	2	3
14	내 감정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15	보통 때보다 더 오래 잔다.	0	1	2	3
16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화를 낸다.	0	1	2	3
17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0	1	2	3
18	기분전환이 될 수 있을 만한 말을 자신에게 한다.	0	1	2	3
19	그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다.	0	1	2	3
20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0	1	2	3
21	전문적인 도움을 청한다.	0	1	2	3
22	인간적으로 꽤 변모하거나 성장하게 된다.	0	1	2	3
23	어떤 대책을 시도해 보기 전에,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기다려 본다.	0	1	2	3
24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한다.	0	1	2	3
25	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0	1	2	3
26	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었음을 스스로 일깨운다.	0	1	2	3
27	어떻게든 기분을 풀어 버린다.	0	1	2	3
28	내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음을 깨닫는다.	0	1	2	3
29	시작 때보다 좋은 경험을 얻고 끝낸다.	0	1	2	3
30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	0	1	2	3
31	잠시 거기에서 물러나 있다.	0	1	2	3
32	무엇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기분을 전환한다.	0	1	2	3
33	되든 안 되든 한번 시도해 보거나 매우 위험 부담이 큰 일을 한다.	0	1	2	3
34	조급히 굴거나 욕감에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0	1	2	3
35	새로운 신념을 얻는다.	0	1	2	3
36	술을 마신다.	0	1	2	3
37	금지를 가지고 곳곳이 베틀어 나간다.	0	1	2	3
38	일어난 일(또는 상황)이나, 나의 느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0	1	2	3
39	일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0	1	2	3

40	대체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0	1	2	3
41	그 일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 그것에 대하여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0	1	2	3
42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0	1	2	3
43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다.	0	1	2	3
44	그 일을 무시해 버린다 :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0	1	2	3
45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누구에게 말한다.	0	1	2	3
46	내 입장을 지키면서, 바라는 바를 말한다.	0	1	2	3
47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0	1	2	3
48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 : 전에도 비슷한 일(또는 상황)이 있었다.	0	1	2	3
49	다음에는 일이 좀 다를 것이라고 자신에게 다짐한다.	0	1	2	3
50	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0	1	2	3
51	내가 한 말이나 생각을 속으로 되풀이한다.	0	1	2	3
52	내 감정 때문에, 다른 일들이 너무 방해받지 않도록 애쓴다.	0	1	2	3
53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재발견한다.	0	1	2	3
54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	0	1	2	3
55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0	1	2	3
56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0	1	2	3
57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0	1	2	3
58	최악의 경우를 각오한다.	0	1	2	3
59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0	1	2	3
60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대로 따른다.	0	1	2	3
61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0	1	2	3
62	내가 가장 바라던 것이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책이라도 받아들인다.	0	1	2	3

부록 5. 아이젠크 성격검사(EPQ)

※ 다음의 물음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면 ‘예’,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각각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
1	일을 착수하기 전에 깊이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2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주의를 많이 기울입니까?	예	아니오
3	특별한 이유 없이 비참한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쾌활한 편입니까?	예	아니오
6	예절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합니까?	예	아니오
7	일을 약속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이행합니까?	예	아니오
8	재미있고 흥겨운 파티에 가면 마음을 터놓고 즐길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9	짜증을 잘 냅니까?	예	아니오
10	자신의 잘못된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	아니오
12	바른 예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13	감정이 쉽게 상합니까?	예	아니오
14	사교모임에 가면 뒷자리에 있으려고 합니까?	예	아니오
15	자주 실증이 납니까?	예	아니오
16	핀이나 단추같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7	외출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예	아니오
18	죄책감 때문에 자주 고민합니까?	예	아니오

19	당신은 스스로 신경이 과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20	친구가 많습니까?	예	아니오
21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예	아니오
22	바른 예법과 단정한 몸가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23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였거나 분실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4	새 친구를 사귄 때 항상 주도권을 행사합니까?	예	아니오
25	당신은 스스로 긴장이 심한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26	다른 사람에 비해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까?	예	아니오
27	재미없고 지루한 파티를 활기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28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9	어렸을 때 부모에게 건방지게 군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0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까?	예	아니오
31	자기가 한 일에서 잘못이 발견되면 걱정을 많이 합니까?	예	아니오
32	식사 전에는 언제나 얼굴이나 손을 씻습니까?	예	아니오
33	별 이유 없이 자주 맥이 풀리고 피로해집니까?	예	아니오
34	남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5	파티를 즐겁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36	다른 사람에게 결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합니까?	예	아니오
37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편입니까?	예	아니오
38	신경과민으로 고생하십니까?	예	아니오
39	외롭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까?	예	아니오
40	남에게 훈계한 것을 당신 스스로는 언제나 실천합니까?	예	아니오
41	멋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사회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42	약속시간이나 출근시간에 늦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3	떠들썩하고 흥분된 분위기를 좋아합니까?	예	아니오
44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때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45	다른 사람은 당신을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
46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아니오
47	화를 잘 냅니까?	예	아니오
48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납니까?	예	아니오